

## 최근 북한 고려 의학에 반영된 『동의보감』 연구

<sup>1</sup>中國 天津中醫藥大學 大學院生 · <sup>2</sup>中國 天津中醫藥大學 教授

張梓立<sup>1</sup> · 金軍<sup>2</sup> \*

### A Study in the Influence of *The Treasured Mirror of Eastern Medicine (Donguibogam)* upon the Koryo Medicine in North Korea

Zhang Zili<sup>1</sup>, Jin Jun<sup>2</sup>

<sup>1</sup>Graduate Student at Tianjin University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sup>2</sup>Professor at Tianjin University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Objectives:** This article aims to clarify the understanding and publication status of both *The Treasured Mirror of Eastern Medicine (Donguibogam)* and some of its recent research progress made in North Korea, as well as their influences upon the academic of Koryo medicine in North Korea.

**Methods:** Analysis was carried out based on various reference books, dictionaries and Korean translation of *Donguibogam* (1964 Ver.) published by North Korea, as well as the North Korean quarterly medical journal, Koryo Medicine.

**Results:** The academic of Koryo medicine in North Korea regards *Donguibogam*, a Korean medical classic as it was written by native Korean physicians and it became an important ground material for basic research and clinical study. Various terminologies used in the original version of *Donguibogam* were defined as unscientific and superstitious by North Korean academics, which were then subsequently removed from the Korean translation of *Donguibogam* (1964 Ver.) published by North Korea. Therefore, this version cannot be seen as a complete edition of *Donguibogam*.

**Conclusions:** The *Donguibogam* is known as one of the 'three major books of Koryo medicine' in North Korea. As a treasure of East-Asian traditional medical classic, *Donguibogam* is expected to become the medium for a closer research collaboration between the North and South Korea including China in the future.

**Key words :** *The Treasured Mirror of Eastern Medicine (Donguibogam)*, Heo Joon, North Korea, Koryo medicine

\* Corresponding author : Jin Jun

Tianjin University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Tel : 86-13-323396699, E-mail : kimkun555@126.com

Received(Jul 27, 2018), Revised(Aug 13, 2018), Accepted(Aug 13, 2018)

Copyright © The Society of Korean Medical Classics. All rights reserved.

Ⓢ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 1. 서론

『동의보감』은 예로부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았고 또 그와 관련된 수많은 연구 성과들이 발표되어 있다. 안타깝게도 북한에서 『동의보감』은 어떤 평가를 받고 있고, 또 북한 고려의학계에서 『동의보감』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 본고에서는 북한에서 최근 출판된 여러 도서 자료와 북한 내부의 유일한 고려 의학 관련 학술 잡지인 『고려의학』을 참고해 북한의 『동의보감』에 대한 연구 현황을 정리하고 소개하고자 한다.

## 2. 북한의 『동의보감』에 대한 인식과 평가

### 1) 『고려침구사전』

2013년 북한에서 편찬된 『고려침구사전』은 『동의보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우리 나라 3대고려의학고전의 하나. 『동의보감』은 이름난 의학자 허준(1545~ 1615)이 자신의 오랜 임상경험과 국내의 수백여권의 의학책들을 참고하여 새로운 체계로 1596~1610년에 편찬하고 1611년에 출판한 16세기말까지의 우리 나라 고려의학발전성과를 집대성한 의학백과전서적인 책이다.”<sup>1)</sup>

“『동의보감』은 목록 2권, 내경편 4권, 외형편 4권, 잡병편 11권, 탕액편 3권, 침구편 1권 총 25권으로 되어있다. ... 『동의보감』은 당시 고려의학을 발전시키는데서 큰

역할을 하였을뿐만아니라 오늘도 그 과학적인 내용과 고려치료에서의 실용적의의, 문화사적가치가 높이 평가되고있다.”<sup>2)</sup>

### 2) 『조선력사문화상식 (1)』

2012년에 출간된 『조선력사문화상식 (1)』에서는 “고려의학의 대백과사전 『동의보감』”이라는 항목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그는 우리 나라의 향약을 귀중히 다루었고 매 병치료법마다에 향약료법을 거의 빠짐없이 썼으며 약이름을 우리 글로 써서 인민들이 쉽게 구해 쓸수 있게 하였다.

허준은 이 책을 쓰면서 650여권의 내외의 의학책을 참고하고 중요한 내용들을 인용하였으며 필요한것들은 자신의 독특한 구상에 따라 리론화, 체계화하였다.

그는 이 책에서 건강을 유지하는데서 육체와 정신을 단련하는 것이 선진적이고 약과 침은 그 다음이라는 선진적인 사상을 강조하였다. 이 소박한 예방의학사상은 허준의 진보적의학사상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동의보감』은 방대한 규모의 과학적저술이면서 동시에 광범한 인민들이 누구나 병치료에 쉽게 쓸수 있도록 실용성을 갖추고 있는데 특색이 있다. 이 책은 당시의 의학수준에 비추어볼 때 뛰어난 과학적내용을 풍부히 담고있는데 매개 편이 다 그 부문의 전문의학책으로서 손색이 없는 면모와 내용을 갖추고있다는데서도 잘 알수 있다. ... 이처럼 『동의보감』은 동방의학의 모든 성과를 하나의 체계로 과학화, 리론화한 고려의학백과전서이다.”<sup>3)</sup>

“중국 의학대사전에는 『동의보감』에 대하여 체계가 정연하고 내용이 풍부하여 의

\* 이 논문은 張梓立·金軍이 공동 저술했으며,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오계근이 편집 및 윤문을 실시했습니다. 편집 및 윤문 과정에서 저자의 의도와 다른 일부 표현이 추가되었을 수 있습니다. 북한 책에서 직접 인용한 문장은 북한 책의 표기를 그대로 가져왔기에 한글 맞춤법과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직접 인용문이 아닌 문장은 한글 맞춤법 표기를 준용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자료의 경우 중국에서는 쉽게 접할 수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접근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1) 최득룡 등. 고려침구사전. 평양. 의학과학출판사. 2013. pp.158.

2) 최득룡 등. 고려침구사전. 평양. 의학과학출판사. 2013. pp.159.

3) 김동일·엄병섭·김정선. 조선력사문화상식(1). 평양. 근로단체출판사. 2012. pp.112-115.

학계의 거대한 존재라고 하였으며...”<sup>4)</sup>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중국 의학대사전은 중국의 謝利恒이 편찬하여 1921년에 출판한 『中國醫學大辭典』이다. 『中國醫學大辭典』의 『동의보감』 조목 중에는 “풍부한 내용이 정연하게 구성되어 있는, 의학계의 큰 성과”<sup>5)</sup>라는 평가가 실려 있다.

### 3) 북한 『고려의학고전해제』

『고려의학고전해제』에서는 『동의보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소개를 싣고 있다.

“이 책은 우리 선조들이 수천년을 내려오면서 우리 민족의 생활습성과 신체구조에 알맞게 창조하고 발전시킨 치료법과 처방들이 들어있는 책으로서 오랜 기간 우리 인민의 병치료와 건강증진에 리용되었으며 의학백과전서적인 책으로 국내외에 널리 알려졌다.”<sup>6)</sup>

“『동의보감』의 특징을 보면 첫째로, 고려 의학의 전반내용을 다 포괄하고있는 의학백과전서적인 책이라는데 있다.

『동의보감』의 내용들은 학문별, 전문과별로 갈라져 집대성되어있어 고려의학의 4대 분야(고려기초, 고려림상, 고려약, 침구학)를 다 포괄하고있는 전서적인 책이라고 말할 수 있다.

둘째로, 독자들이 참고리용하기 쉽게 목록을 설정하고 1권과 2권에는 목록차례를 상세하게 주고 내용을 정연한 체계로 편찬하였다.

『동의보감』은 고려의사들에게 『림상치료편람』으로, 고려의학을 배우는 사람들에게 『고려의학고과서』로 리용하기 편리하게 편찬되었다.

셋째로, 『동의보감』은 고려의학의 전서로서 담아야 할 내용들을 풍부하게 담고있는 것이다.

『동의보감』은 우리 나라 민족의학인 고려의학의 발전성과뿐만 아니라 동방의학의 성과들도 집대성한것으로서 전통의학의 전반내용이 매우 풍부하게 서술되어있다. ... 『조선의학대백과사전』에서는 『동의보감』은 『의방유취』, 『의종금감』과 함께 동방의학의 3대백과사전의 하나로 평가하였다.

넷째로, 『동의보감』은 치료본위적인 종래의 의학책들과 달리 병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해야 한다는 선진적인 립장에서 특색 있게 서술한것이다.

다섯째로, 『동의보감』은 종래의 의학리론들과 립상경험들을 우리 나라의 실정과 조선사람의 생활습성, 체질에 맞게 창조적으로 받아들여 서술한것이다.”<sup>7)</sup>

“『동의보감』출판이 가지는 의의는 첫째로, 이 책이 당시 우리 나라 고려의학의 발전면모를 뚜렷이 과시하고 고려의학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는데 있다.

『동의보감』은 출판된 후 고려의사들의 귀중한 치료참고서로, 의학을 배우는 사람들에게 교과서로 애용되어왔다.

또한 고려의학이 전문과별로 급속히 발전하는데 기여하였을뿐만 아니라 이후시기 의학책들인 『의문보감』(1724년), 『제중신편』(1799년), 『방약합편』(1855년) 등의 편찬출판사업에 큰 도움을 주었다.

의의는 둘째로, 『동의보감』은 동방의학리론을 더욱 체계화하고 보다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켰으며 동방의학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다는데 있다. (이하 중략)

의의는 셋째로, 『동의보감』은 국보적인 민족의학유산으로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에 와

4) 김동일 · 엄병섭 · 김정선. 조선력사문화상식(1). 평양. 근로단체출판사. 2012. p.116.

5) 謝觀 等 編著. 中國醫學大辭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4. p.347. “宏富有條理, 醫林鉅製也”

6) 김은희. 고려의학고전해제. 평양. 의과학출판사. 2014. p.69.

7) 김은희. 고려의학고전해제. 평양. 의과학출판사. 2014. pp.69-70.

서도 고려치료에서의 실용적의의, 문화사적 가치로 하여 큰 의의를 가진다.

『동의보감』은 고려의학전서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하여 당시는 물론 오늘날도 고려의학의 귀중한 참고서로 의학자들과 임상 의사들이 널리 참고리용하고 있다.”<sup>8)</sup>

이 밖에도 『동의보감』 소개문에 이어 許浚의 생애를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 3. 북한에서의 『동의보감』 출판 상황

북한은 건국 이후, 1962년, 북한 의학출판사를 통하여 『동의보감』 25권을 국역하여 출판하였다. 이 출판본은 『동의보감』 원본과 그 차례가 같으며 페이지마다 우선 한글 번역문이 실려 있고, 다음 페이지에는 이에 대응하는 원문 영인본이 실려 있다. 또 1982년에는 북한 과학·백과사전출판사를 통해 번역하고 주해한 뒤 원문과 함께 5권으로 출판하였다. 매 권 앞부분에는 한글 번역문이 실려 있고, 뒷부분에는 원문의 필사본이 실려 있다.<sup>9)</sup>

### 4. 북한의 최근 『동의보감』 연구 근황

북한의 고려 의학 학술 잡지 『고려의학』은 1년에 4회 출간된다. 2016년에서 2017년, 2년 간 8권의 잡지 중 고려 의학 고전, 原典學에 해당하는 논문을 찾아보면 Table 1과 같다.

이 중 『동의보감』과 관련된 논문은 4편이다. 왕현옥·김정수는 1981년 판 『동의보감』 4권, 원본의 「잡병편」 7-11권에 대해 『조선왕조실록』, 『사해(史海)』 등의 사회역사문헌, 『의학의 역사』, 『조선의서

지(朝鮮醫書誌)』 등 국내의 의학사문헌, 옥편과 중국 『고한어자전(古漢語字典)』<sup>10)</sup>을 참고해 원문과 번역문을 검토했으며, 이해하기 힘든 용어들을 주해(註解)하고 학술 체계에 따라 전자문서화 했다. 그 결과, 「잡병편」 7-11권 총 607페이지에 해당하는 한자 158,331개를 입력하였고 전에 있었던 142건의

Table 1 Article related the Medical Classics in the Journal of Koryo Medicine, North Korea for 2016-2017

표 3 2016-2017년 간행된 북한 『고려의학』 중의 原典學 논문

제목	저자	발간년도	권	쪽
한문문장의 구두점적기와 『동의보감』에서의 적용	임철성 왕현옥	2017	4	62-63
『동의보감』의 일부 병문(오줌)에 대한 연구	한충혁 임철송	2017	3	45
『동의보감』을 전자문서화하기 위한 연구	배은수 한충혁	2017	2	60
『동의보감』을 전자문서화하기 위한 연구	왕현옥 김정수	2016	4	10
유실된 16세기 고려 의학 고전들을 발굴정리하기 위한 연구	최철남 강금성	2017	3	13
15세기 의학고전 『구급방』의 복원에 대한 연구	박광일 김은희	2017	2	13
고려 의학 고전 『남약증치방』을 발굴하기 위한 연구	조선향 김은희	2016	4	31-32
고려 의학 고전 『마과회통』의 번역 및 자료기지화를 위한 연구	김형준 김은희	2017	3	15-16
『시종통편』을 번역하고 자료기지화하기 위한 연구	김원철 김은희	2016	4	7
일부 고전해부도들에 대한 분석연구	정현철 렴준예	2016	3	34
전통해부의 역사에 대하여	정현철 리강희	2016	2	53
고려 의학 고전들에 서술된 치료에 대한 견해	조준호	2017	3	62

8) 김은희. 고려의학고전해제. 평양. 의학과학출판사. 2014. pp.71-72.

9) 김은희. 고려의학고전해제. 평양. 의학과학출판사. 2014. p.72; 최득룡 등. 고려침구사전. 평양. 의학과학출판사. 2013. p.159.

10) 張永言. 簡明古漢語字典. 成都. 四川人民出版社. 1986

주해(註解)에 ‘熱瘧’, ‘阿魏’, ‘鬼魅’ 등 643건의 주해를 추가했다.<sup>11)</sup>

배은수 · 한충혁은 1981년 판 『동의보감』 1-5권에 대해 편(篇), 병문(病門), 조목(條目)에 해당되는 숫자를 확정하고 번역문의 자료 체계 특징을 분석했다. 분석을 통해, 첫 번째, 「내경편」 1권에서 병문별 조목의 개수와 처방 개수를 제시하고, 두 번째, 『동의보감』 4개편에 기록된 병문, 조목, 처방 개수를 소개했으며, 세 번째, 「침구편」의 혈자리 수와 금기혈수를 2개의 표로써 제시했다. 결론에서는 “『동의보감』의 번역문에 대한 자료체계특징을 편, 병문, 조목별로 밝혔다”<sup>12)</sup>고 했다.

한충혁 · 임철송은 1981년 판 『동의보감』 1권을 바탕으로 「내경편」 4권의 오줌문(小便門)에 실린 방제와 약제 관련 자료를 종합하고 통계적으로 분석했다. 분석 결과 첫 번째, 오줌문의 각 병증들에 쓰인 처방 수, 두 번째, 오줌문의 처방들에서 많이 쓰인 약제, 세 번째, 주된 약물의 가짓수와 보조 약물의 가짓수를 3개의 표로써 제시했다. 이어 “주약으로 제일 많이 쓰인 약제는 곱돌과 감초였다”고 하며, “곱돌과 감초로 이루어진 처방은 익원산(일명 룩일산)인데 이 처방은 《동의보감》 잡병편 3권의 서문과 잡병편 5권의 곱관문에 인용되어있으며 쓰는데는 더위를 먹어서 몸에서 열이 나며 게우고 설사를 하며 적백리질이 있고 오줌이 나오지 않는데 쓴다고 되어있다”<sup>13)</sup>고 분석했다.

논문에서는 “소변불리와 소변불금의 처방이 각각 12개(11.8%)로 많았다”고 이야기하며, 소변불통(小便不通)을 치료하는 처방 개수를 4개로 표시하고 있지만, 『동의보감』 목록과 해당 원문을 살펴볼 때<sup>14)</sup> 통계 결과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한다. ‘小便不利’ 조목 밑에 수록된 처방은 북한 연구자가 말한 12개가 아니라 4개(萬全木通散 · 茯苓琥珀散 · 平補元和 이

없는 한 처방)이고, ‘小便不通’ 조목 밑에 수록된 처방은 4개가 아니라 11개(八正散 · 清肺散 · 滋腎丸 · 導氣除燥湯 · 導赤元 · 地膚子湯 · 宣氣散 · 通關丸 · 豬苓湯 · 加味五苓散 · 透泉散)이기 때문이다.

임철성 · 왕현옥은 중국의 『의고문(醫古文)』을 참고해<sup>15)</sup> 『동의보감』으로 한문 문장의 구두점을 찍는 방법을 소개했다. 먼저 “한문문장의 구두점 찍기에 대한 일반 지식”을 소개한 뒤, 이어 “문장 성분에 따르는 한문 문장의 구두뎡기”와 “조사에 따르는 구두뎡기”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 『동의보감』 예문을 해석했다. 그리고 맺음말에서는 “우리 나라 3대의학 고전의 하나인 《동의보감》을 전자문서화하는 과정에 전 25권에 달하는 원문에 대한 구두뎡기를 진행하여 열람의 편리성과 정확성을 도모하였다”고 하였다.<sup>16)</sup>

최근 수년간, 북한 고려 의학계는 『동의보감』을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7년 7월 18일의 북한 조선중앙통신에서는 ““최근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에서 《동의보감》 열람프로그램 《유산1.0》을 개발하였다. 16세기까지의 조선의 고려의학발전성과를 집대성한 백과전서인 《동의보감》은 《의방류취》, 《향약집성방》과 함께 3대 고려의학고전으로 전제되고있으며 다른 나라들에도 널리 알려져있다. 새로 개발한 프로그램에는 근 100만자에 달하는 원문한자들과 5권의 번역문들이 전자문서로 입력되어있고 3000여개의 고려의학용어, 1000여종의 고려약자료, 1만자의 한자사전이 구축되어있다. 수천페이지에 달하는 원전이 화상화일로 보관되어있으며 학술체계에 따르는 분류, 검색 등을 원만히 할수 있게 되어있다.”<sup>17)</sup>고 보도한 바 있다.

## 5. 북한 고려 의학에 미친 영향

『동의보감』의 병문(病門)은 대체로 『내경』으로부터

11) 왕현옥 · 김정수. 『동의보감』을 전자문서화하기 위한 연구. 고려의학. 2016. 4. p.10.  
12) 배은수 · 한충혁. 『동의보감』을 전자문서화하기 위한 연구. 고려의학. 2017. 2. p.60  
13) 한충혁 · 임철송. 『동의보감』의 일부 병문(오줌)에 대한 연구. 고려의학. 2017. 3. p.45.  
14) 許浚 編著, 郭壽春等 校點. 東醫寶鑑.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5. pp.10-11, 138-140

15) 段逸山. 醫古文.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2.

16) 임철성 · 왕현옥. 한문문장의 구두점찍기와 『동의보감』에서의 적용. 고려의학. 2017(4). pp.62-63.

17) (북한)조선중앙통신 2017년 7월 18일 [cited on July 15, 2018] available from <http://www.kcna.kp/>.

터 시작하고 있으며, 의학 이론 관련 논술에서도 『내경』을 가장 많이 인용하고 있다.<sup>18)</sup> 실제 『영추』는 『동의보감』 「침구편」 기초 이론 부분에서 제일 많이 인용된 서적 중 하나이기도 하다.<sup>19)</sup> 북한에서 출판된 고려 의학 저작들은 기초 이론 관련 내용을 기술할 때 『내경』을 비롯한 원전(原典)들을 직접 인용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동의보감』의 해당 내용을 인용한다. 예를 들어, ‘所生病’은 『영추』 「경맥」에서 처음 언급됐지만, 북한 『고려침구사전』의 ‘所生病’ 조목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소생병(所生病): 경맥의 병증후에서 장의 기능장애로 병이 생긴다는 말이다. 즉 경맥과 연계되어있는 장부에 병이 생기면 그의 기능과 연관된 병증후가 생긴다는 것을 말한다. 예: 『동의보감』에 수태음폐경은 폐를 주관하는데 여기에 병이 생기면 폐기가 치밀어 기침이 나며 숨이 차고 목이 마르며 가슴은 답답하고 그득하며 팔의 안쪽 앞기 숨이 아프고 차지며 손바닥에 열이 난다고 하였다.”<sup>20)</sup>

필자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1967년 의학출판사를 통하여 『황제내경소문』을 국역 출판했다.<sup>21)</sup> 그 후 일부 서적들의 참고문헌으로 인용되고 있지만, 대다수의 북한 고려 의학 서적들, 특히 침구 서적들은, 참고 자료로써 『동의보감』을 주로 인용하고 있다. Table 2는 필자가 입수한 최근 북한에서 출판된 고려 의학 서적들의 참고문헌에 대한 간단한 통계이다.

위의 표에 따르면, 최근 수년간에 북한에서 출판된 고려 의학 서적들은, 거의 『동의보감』을 참고자료로 삼아 학술 연구를 진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Table 2 The books referred to the Huang Di's Inner Classic — Basic Questions published in North Korea, 1967

표 2 북한 1967년판 『황제내경소문』을 참고문헌으로 삼은 서적

이름	저자	출판사	출판년간
침뜸치료의 묘리	지만석	평양의학과학출판사	1995
고려의학원리	지만석 지성광	평양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2

Table 3 The books referred to *the Treasured Mirror of Eastern Medicine* published in North Korea

표 3 『동의보감』을 참고문헌으로 삼은 서적

이름	저자	출판사	출판년도
침뜸치료의 묘리	지만석	평양:의학과학출판사	1995
고려의학원리	지만석 지성광	평양: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2
침구술(2판)	김석경	평양:고등교육도서출판사	2014
5유혈침술과 사혈요법(제3판)	강수환 강금성	평양:의학과학출판사	2015
침구기초와 변증치료(제3판)	리경웅 등	평양:의학과학출판사	2015
침구의 현대의학적기초와 임상	최득룡 등	평양:의학과학출판사	2015
침구학(대학용)(8판)	김석경 등	평양:고등교육도서출판사	2016
침혈이름유래와 작용(제3판)	장성일 등	평양:의학과학출판사	2017

특히 북한 1982년 판 『동의보감』 제 5분책(「탕액편」 3권과 「침구편」 1권 묶음)은, 북한 침구학 전문 저서라면 반드시 인용하고 있는 저작이라고 볼 수 있다.

18) 車武. 許浚與『東醫寶鑑』. 北京. 中央民族大學出版社. 2012. p.202.

19) 車武. 許浚與『東醫寶鑑』. 北京. 中央民族大學出版社. 2012. p.180.

20) 최득룡 등. 고려침구사전. 평양. 의학과학출판사. 2013. p.3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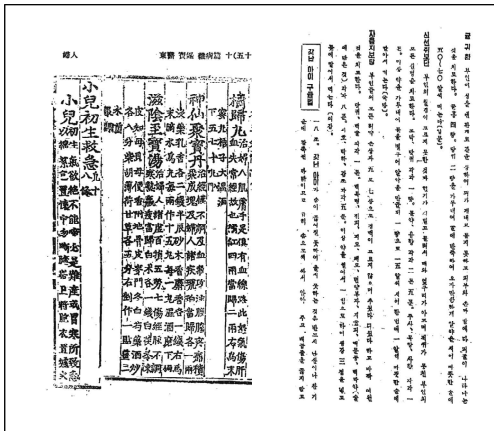
21) 강주언 등 저역. 황제내경소문. 평양. 의학출판사. 1967.

## 6. 북한 1964년 판 『동의보감』에 대한 소고(小考)

북한 1964년판 『동의보감』은 원문 영인판과 한글을 서로 대조한 형식으로 출판되었는데, 영인 원문에도 재편집의 흔적이 있다. Fig. 1(좌)에서와 같이 『

Fig. 1 Gynecology, Miscellaneous Disorder, *The Treasured Mirror of Eastern Medicine* published in North Korea

그림 1 『동의보감』「잡병편」「부인문」 1964년 북한판



동의보감』「잡병편」「부인」에서는 ‘滋陰至寶湯’ 다음에 ‘安產室’, ‘安產方位圖’, ‘安產藏胎衣吉方’, ‘催生符’, ‘體玄子借地法’, ‘月遊胎殺所在’, ‘日遊胎殺所在’, ‘房中日遊神所在’, ‘推婦人行年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sup>22)</sup> 북한판에서는 이를 모두 삭제한 채 ‘小兒初生救急’을 이어 붙이고 있다.<sup>23)</sup> 이외에 『동의보감』「침구편」 마지막 부분에서는 Fig. 2와 같이 ‘九宮圖’, ‘九宮尻神圖’를 비롯해 醫易學과 관련된 내용이 다수 수록되어 있다. 반면 북한판에서는 ‘風從東南來’까지만 번역하고, “이하 원문의 번역은 필요 없으므로 삭제하였는바 원문만을 참고로 그냥 게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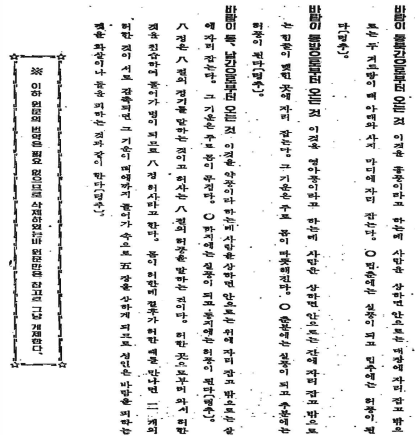
22) 許浚 等著. 東醫寶鑑.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pp.626-628.

23) 북한 1964년판 『동의보감』「잡병편」 출처 : CNC 학술정보 [cited on July 15, 2018]; Available from [http://yesnc.com/home/contents/article\\_view.php?no=18360](http://yesnc.com/home/contents/article_view.php?no=18360)

고 하며 책 끝까지 영인 원문만을 소개하고 있다.<sup>24)</sup>

Fig. 2 Acupuncture and Moxibustion, *The Treasured Mirror of Eastern Medicine* published in North Korea, 1964

그림 2 『동의보감』「침구편」 1964년 북한판



북한은 의역학(醫易學)적인 내용에 대하여 ‘비과학적’이나 ‘미신적’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1997년판 북한 『동의학사전』의 ‘동의보감’ 조목에서는 “이 책에는 당시 시대적 제한성과 저자 자신의 계급성 제한성으로 하여 비과학적이며 미신적인 이론들과 치료법들이 들어 있으므로 비판적으로 참고해야 한다”고 서술하고 있다.<sup>25)</sup>

북한 1984년판 『향약집성방』 제1분책의 ‘출판사로부터’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서술되고 있다.

“그러나 다른 동의고전들과 마찬가지로 이 책에도 편찬출판된 당시의 사회력사발전의 제한성으로 하여 관념론적이고 미신적이며 비과학적인 내용들이 있다. 그러므로 이 책을 비판적으로 보아야 하며 좋은 점만을

24) 북한 1964년판 『동의보감』「침구편」 출처 : CNC 학술정보 [cited on July 15, 2018]; Available from [http://yesnc.com/home/contents/article\\_view.php?no=18365](http://yesnc.com/home/contents/article_view.php?no=18365)

25) 윤창열. 남북한 의료제도의 통합 및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한의학회연구회 연구보고서. 1998, pp.247-266.

계승발전시켜 치료예방사업에 널리 받아들여야 한다.”<sup>26)</sup>

뿐만 아니라, 북한의 1986년판 『방약합편』의 머리글에서도,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실려 있다.

“그러나 이 책에는 다른 동의고전들에서와 마찬가지로 당시의 시대적제한성으로부터 반영된 이러저러한 결함들도 적지 않다. 음양오행설에 기초한 관념론적이고 도식적인 리론과 또한 과학성이 없고 비문화적인 치료방법들이 부분적으로 소개되어있으며 오늘의 시점에서 볼 때는 의의가 없는 내용들도 들어있다. 그러므로 이런 측면들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옳게 가려보아야 할 것이다.”<sup>27)</sup>

북한 1964년판 『동의보감』은 완본(完本)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그저 당시 북한의 국내 정세에 잘 맞는 편집본일 뿐이다. 다만, 북한에 의한 번역문은 한자어를 쉬운 한국어말로 풀어 쓰고 있어 의학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이 이해하기 편리함을 위한 좋은 점이 아닐까 생각된다. 북한 1984년판 『향약집성방』 또한 비슷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sup>28)</sup>

## 7. 맺음말

북한 고려 의학계는 『황제내경』을 비롯한 옛날에 중국에서 전래된 원전들보다는, 『동의보감』 등 한의학 발전사에서 자체 특색을 나타낸 원전들을 더 중요시한다. 『동의보감』은 『향약집성방』, 『의방유취』와 함께 ‘3대 고려 의학 고전’이란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고려 의학 백과전서’이란 명호가 부여되어 있다. 2017년 북한에서 ‘3대 고려 의학 고전’ 기

념우표도 나왔다. 또 그 해에 장편 역사 소설 『동의보감』이 출판되기도 했다.<sup>29)</sup> 중국과 한국은 각각 2013년에 『동의보감』 영역본을 출판했지만, 중의학계는 아직 『동의보감』에 대하여 큰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다. 『동의보감』이 동아시아 전통의학의 귀중한 문화 재산으로써 향후 남북 간, 중국과 한반도 사이에서 더욱 활발한 학술 교류와 협력을 이루는 매개가 되기를 바란다.

## References

1. Che W. Xu Jun and Treasured Mirror of Eastern Medicine. Beijing. Minzu Univ. of China Press. 2012.  
車武. 許浚與東醫寶鑑. 北京. 中央民族大學出版社. 2012.
2. Choe DR. Dictionary of Koryo Acupuncture and Moxibustion. Pyongyang. Medical Science publishing house. 2013.  
최득룡 등. 고려침구사전. 평양. 의과학출판사. 2013.
3. Heo J et al.. Treasured Mirror of Eastern Medicine (Donguibogam). Beijing. People's medical publishing house co.. 1982.  
許浚 等著. 東醫寶鑑.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4. Heo J et al.. Guo AC eds. Treasured Mirror of Eastern Medicine (Donguibogam) with Collation. Beijing. Chinese Publishing Co. for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1995.  
許浚 編著, 郭霽春等 校點. 東醫寶鑑.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5.
5. Hwang DY. trans. by Kim DI. Compilation of Formulas and Medicinals. Pyongyang. Science Encyclopedia publishing house. 1986.  
황도연 저, 김동일 번역. 방약합편. 평양. 과학백

26) 유효룡·로중례·박윤덕 등 저. 향약집성방1(1-18권). 평양.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1984. p.2.

27) 황도연 저, 김동일 번역. 방약합편. 평양.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1986. p.4.

28) 이경미. 남북한 한의학 전문용어 비교: 국역 『鄉藥集成方』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29) 한영철·최홍록. (장편사화)동의보감. 평양. 금성청년출판사. 2017.

- 과사전출판사. 1986.
6. Kim DI, Eom BS, Kim JS, Common sense of History and Culture for Joeson. Pyongyang. Workers' organization publishing house. 2012.  
김동일 · 엄병섭 · 김정선. 조선력사문화상식(1). 평양. 근로단체출판사. 2012.
  7. Kim EH. Bibliography for Koryo Medical Classics. Pyongyang. Medical Science publishing house. 2014.  
김은희. 고려의학고전해제. 평양. 의학과출판사. 2014.
  8. Xie G eds. Dictionary for Chinese Medicine. Beijing. Chinese Publishing Co. for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1994.  
謝觀 等 編著. 中國醫學大辭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4.
  9. Yu HT, Ro JL, Park YD. Compendium of Prescriptions from the Countryside, Pyongyang. Science Encyclopedia publishing house. 1984.  
유효통 · 로중례 · 박운덕 등 저. 향약집성방 1(1-18권).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4.
  10. Yun CY. The Studies on the Unification of Medical Systems of South & North Korea & the Plans of Its Practical Uses.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1998.  
윤창열. 남북한 의료제도의 통합 및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한의학연구원 연구보고서. 1998.
  11. Bae ES · Han CH. Make the Treasured Mirror of Eastern Medicine (Donguibogam) into electronic document. J. of Koryo Medicine 2. 2017.  
배은수 · 한충혁. 『동의보감』을 전자문서화하기 위한 연구. 고려의학. 2. 2017.
  12. Han CH · Im CS. A study on the Urine part of the Treasured Mirror of Eastern Medicine (Donguibogam). J. of Koryo Medicine 3. 2017.  
한충혁 · 임철송. 『동의보감』의 일부 병문(오줌)에 대한 연구. 고려의학. 3. 2017.
  13. Im CS · Wang HN. Punctuating Chinese sentences and application to the Treasured Mirror of Eastern Medicine (Donguibogam). J. of Koryo Medicine 4. 2017.  
임철성 · 왕현옥. 한문문장의 구두점찍기와 『동의보감』에서의 적용. 고려의학. 4. 2017.
  14. Lee KM. Comparative Study on Oriental Medicine Terminology of South and North Korea : Focusing on 『HyangYakGipSungBang (鄉藥集成方)』. master thesis of The Graduate School of Ewha Womans University. 2002.  
이경미. 남북한 한의학 전문용어 비교: 국역 『鄉藥集成方』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15. Wang HO · Kim JS. Make the Treasured Mirror of Eastern Medicine (Donguibogam) into electronic document. J. of Koryo Medicine 4. 2016.  
왕현옥 · 김정수. 『동의보감』을 전자문서화하기 위한 연구. 고려의학. 4. 2016.
  16. Korean Central News Agency of North Korea, July 18, 2017. [cited on July 15, 2018]; Available from <http://www.kcna.kp/>. (북한)조선중앙통신 2017년 7월 18일. [cited on July 15, 2018]; Available from <http://www.kcna.kp/>.
  17. Created Network Contents. [cited on July 15, 2018]; Available from <http://yesnc.com>  
CNC 학술정보. [cited on July 15, 2018]; Available from <http://yesnc.com>